

---

2026 소리프런티어 1차 심사를 마치며

2026년 소리프런티어 첫 번째 큰 여정을 마쳤습니다. 심사라 일컬어지지만 하나의 은하계, 하나의 우주를 여행하고 온 느낌입니다. 21팀.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전북, 충남 등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을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넓지 않은 영토지만 다양한 향토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마다 말씨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성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성정이 다른데 음악의 다름이야 더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앞서 드린 말씀에서 ‘다름’이 오해를 만들 수 있다면 다름을 개성, 지역성, 향토성, 독창성 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적으로 그 다름, 즉 지역적 특성을 ‘토리’라 했습니다.

산으로 강으로 마을로 성씨로 막혔던 사회와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지역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제도 등은 공평을 목표로 나아가지만 문화는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고 꽃피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경제적 토대에 깊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는 공평으로 저울질을 하지만, 그것이 문화의 몰개성으로 발현되면 안 됩니다. 예술은 고유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둡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실 때 페루아를 말하며 지역성과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음악이 만들어질 때 예술가의 가슴과 머리 그리고 몸에 밴 환경의 독특함이야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마을을 넘고, 도시를 넘고, 국가를 넘어 지구적 생활 감각을 갖게 된 세상입니다. 확장되고 공유되는 감각에 열려 있으며 동시에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만든 것을 세세하게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이 구축되는 환경을 살피는 일이 지역성을 구축해 보려는 또 다른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살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지역의 예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에 예술이 있게 하고 그 예술이 지역의 독

---

특함으로 그리고 개개인의 고유함으로 빛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지역의 예술가를 만날 수 있었던 행복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을 넘어 심의위원인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각 팀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팀이 자기만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지, 각자 고유한 색깔로 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의 음악으로 떼루아라는 뿌리를 살피기는 어렵겠지만 드러난 ‘자기 색’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기 색은 쉽게 찾아지거나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은 사유가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자기 색은 항상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깊이와 시간이 만들어 내는 궤적을 갖습니다. 고유함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사유의 깊이와 시간의 축적. 저희는 오늘 음악을 들으며 각 팀의 음악에 담겨진 사유의 깊이와 개성화의 시간을 여행했고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10개 팀을 더 깊게 만나보고자 선택했습니다. 아쉽게도 2차 실연을 함께하지 못하게 된 팀들의 예술적 열정과 고유한 불꽃 역시 저희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절대적인 가치 평가라기보다 한정된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상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결과가 각 팀이 가진 예술성의 전부가 아님을 밝히며, 결정의 한계 앞에 무거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소리프론티어는 국내와 해외의 무대에서 관객과 춤추고 영혼과 교감할 음악팀을 함께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이 깊은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설계하려 노력했습니다. 2차 실연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인상을 실연자와 심의위원이 직접적으로 나눔으로써 ‘도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한 팀이라도 더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일간의 워크숍 슈퍼워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보다 분명하게 음악과 음악비즈니스를 논하고 살핍니다. 이어서 소리축제 기간에 열리는 최종 쇼케이스를 통해 국내외의 축제와 극장 관계자를 만납니다. 함께 관계를 만들고 미래를 도모합니

---

다. 2025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로 올해를 시작합니다. 소리프론티어 1차 심의에 참여해주신 음악팀과 심의위원 그리고 소리축제 사무국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천재현